

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University-based Librarianship Education in Japan

조 재 순(Jae-soon Jo)*

목 차

- | | |
|------------------------|------------------------------------|
| 1. 서론 | 3.2 일본 정부의 정책 |
|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3.3 연합군과 일본 정부의 정책 분석 |
| 1.2 선행연구 | 4. 'Japan Library School' 프로젝트의 전개 |
| 2. 제2차대전 이전의 도서관학 교육정책 | 4.1 육군성·ALA의 JLS 설립계획 |
| 2.1 도서관 및 사서자격의 법제화 | 4.2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의 창설 |
| 2.2 사서교육기관의 설립 | 4.3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전파 |
| 3. 전후 점령기 도서관학 교육 정책 | 5. 결론 |
| 3.1 연합군 총사령부의 정책 | |

초 록

본 연구는 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형성 과정을 문헌 분석을 통해 역사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교육제도적 측면에서 본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정책은 2차대전 이전의 정책을 승계한 것인데 반해 미국의 정책은 새로운 유형의 교육모델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1951년 미육군성과 미국도서관협회(ALA)의 계약 체결로 게이오대학에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모델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게이오대학 모델은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의 주류모델로 성장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모델의 도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모델이 도입된 일본에 관한 본 연구가 향후 도서관사 연구영역의 확장 또는 대상국을 확대한 후속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University-based librarianship education in Japan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by analyzing literature. The results show that America's librarianship education policy historicall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model of librarianship education whereas Japan's policy was to keep the one from the Second World War. In 1951, an American model of education was established at Keio University by the contract between U.S. Department of the Army an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 America, but it did not continue to develop as mainstream model. The American model of librarianship education was not successful in Japa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cerning Japanese librarianship education which adopted by the American model at the first time after the war in Asia will give vision for further studies in the domain of library history.

키워드: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 일본 도서관학 교육정책, 일본도서관학교, 게이오대학, 경응의숙대학
University-based Librarianship Education, Librarianship Education Policy in Japan, Japan Library School, Keio University

* 동경대학 교육학연구과(도서관정보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국립중앙도서관 사서(soonjo@mail.nl.go.kr)
논문접수일자: 2011년 4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4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5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229-249, 2011. [DOI:10.4275/KSLIS.2011.45.2.229]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우리나라는 1957년 미국교육사절단에 의해 도서관학과가 창립되었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6년 앞선 1951년 도서관학과가 설립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출발은 전후 미국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우리나라 도서관 제1세대들 또한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설립과정이 일본 慶應義塾大學(이하, 게이오대학)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어떤 관계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¹⁾²⁾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모델이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과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외형적 현상만 보더라도 한국은 30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비해 일본은 5개 대학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출발과정은 유사하나 현재 서로 다르게 발전해 온 과정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이 도입된 나라로,³⁾ 일본에 관한 집중적, 심층적 역사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선행모델이 우리나라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어떤 역사적 연관성을 갖는지 등 도서

관사 연구영역의 확대와 대상국을 확대한 후속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도입배경 및 전개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차대전을 전후로 한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 정책을 사적으로 고찰하고, 게이오대학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여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의 설립 및 전개과정을 밝히며, 현행 도서관학 교육 실시 대학을 조사하여 게이오대학 모델이 일본 내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전후맥락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1.2 선행연구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에 관한 일본의 주요 선행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0년을 전후로 미국 측 1차자료를 중심으로 한 역사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국내 연구는 주로 비교연구에서 도서관학 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다(권은경 1981; 엄영애 1989; 이수상 1995).⁴⁾

細野公男(1991)은 게이오대학 소장자료를 사용하여 일본도서관학교(Japan Library School: JLS)⁵⁾ 창립 전후의 시기를 논하였다. 根本彰(1998)은 일본 문헌정보학의 출발점을 전후 미

1) 이수상. 1994. 한국의 문헌정보학 건재한가? 李春熙박사와의 대담. 『도서관문화』, 35(6): 367.

2) 리재철. 2010. 2010년 11월 10일 천안에서 저자와의 면담.

3) Brewster, Beverly(1976)와 Danton, Periam(1971)에 의하면, 아시아에는 일본(1951), 인도네시아(1952), 태국(1955), 파키스탄(1956), 대만 및 필리핀(1961) 등에 학부과정 도서관학과가 탄생하였다.

4) 국내 선행연구에서 JLS 교장 Gitler(기틀러)를 Gilter(길터)로 표기하는 오류도 발견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5)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는 '일본도서관학교(Japan Library School)'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의 문헌

국 도서관학의 도입과정에서 찾고 일본의 문헌 정보학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개관하였다. 또한, 根本彰(2001)은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록펠러재단의 아카이브자료를 사용하여 게이오 대학의 선정 경위를 밝혔다. 三浦太郎, 根本彰(2002)은 ALA와 일리노이대학교 아카이브자료 등을 분석하여 JLS 창설과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그동안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던 특정시기의 역사에 대한 사실 또는 그 경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로 한정되어 있거나, 일본의 대학과정 도서관학 교육에 대한 사실만을 일부 언급한 것으로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제2차대전 이전의 도서관학 교육정책

제2차대전 이전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정책은 도서관 및 사서자격의 법제화와 정부차원의 사서교육기관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서자격의 법제화는 하위직 사서의 임용자격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자격시험에 불과했다는 점, 정부차원의 사서교육기관은 법적 근거는 물론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

2.1 도서관 및 사서자격의 법제화

일본에서는 1899년 ‘도서관령’이 제정됨으로

써 도서관 설치의 법적 기초가 확립되었다. 이후 개정령(1906)에서 “공립도서관에 관장, 사서 및 서기를 둘 수 있다”(제6조)고 하여 ‘사서’라는 명칭이 처음 언급되었다. 1921년 ‘공립도서관 직원령’이 제정되고, 개정령(1933)에서 사서자격의 하나로서 “사서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가 명시되었다. 그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이 1936년 문부성령 ‘공립도서관 사서검정시험규정’이다(岩猿敏生 2007, 170-217).

이 시험은 1937년에 처음 실시되어 1943년에 폐지되기까지 7회에 걸쳐 총 1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시험과목은 ① 국민도덕 요령, ② 국어·한문, ③ 국사, ④ 도서관 관리법, ⑤ 도서 목록법, ⑥ 도서 분류법, ⑦ 사회교육 개설, ⑧ 외국어(영·불·독어 중 택일)의 8과목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치루는 매우 엄격한 제도였다(弥吉光長先生 喜壽記念會 1977, 279-294).

도서관령, 공립도서관 직원령, 공립도서관 사서검정시험규정은 일본의 도서관 및 사서자격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장과 상급사서직에는 관리나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임용이 허용되었고 사서검정시험규정은 하위직 사서의 임용자격만을 엄격히 규정한 제도였다. 또한, 자격시험에 불과하여 채용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별개의 제도로 시행되어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에는 주로 ‘도서관학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본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일본도서관학교’라는 명칭이 바람직하다는 설립자의 의향에 따라 입학요강과 대외적 명칭에서 JLS가 사용되었다. 본고에서는 경우에 따라 혼용하되, 대부분 JLS로 표기하였다.

2.2 사서교육기관의 설립

2차대전 이전에는 주로 단기강습에 의한 사서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본도서관협회⁶⁾는 1903년부터 '도서관사향 강습회'와 같은 단기강습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당국에 장기 강습기관 설립을 꾸준히 요청하였다. 이에, 1921년 정부차원의 장기 사서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것이 문부성 '도서관원 교습소'였다.

교습소의 입학자격은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 졸업자⁷⁾로, 현직 도서관 실무자 중 지방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매년 20~30명 선발하였다. 개강기간은 1년(약 40주)으로 남녀공학이었으며, 학과목은 어학(영·불·독어 중 택일), 도서관 관리법, 목록법, 분류법, 도서관사, 인쇄술 등으로 이루어졌고, 강사는 동경대학도서관장 和田万吉 등 도서관계의 저명인사 17명으로 구성되었다(日本圖書館協會 1993, 486). 1925년에는 '도서관 강습소'로 개칭, 1945년 3월에 폐쇄되기까지 총 53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岡田溫 1981, 315).

문부성 도서관 강습소는 정부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장기 사서교육기관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종의 직업학교로서 정규학교제도 속에 포함된 교육기관이 아니었으며, 법적 근거도 없어 강습소 수료만으로는 취업에도 제한이 있었다.

3. 전후 점령기 도서관학 교육 정책

제2차대전에 패망한 일본은 약 7년간(1945.10.2-1952.4.28) 연합군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Supreme Commanders for the Allied Powers, 이하 '연합군')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점령기간 동안 연합군(실질적으로는 미국)은 패전국 일본의 군국주의적, 국가주의적인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했으며, 도서관정책은 교육정책 속에서 전개되었다.

3.1 연합군 총사령부의 정책

3.1.1 연합군의 도서관학 교육정책 개관

점령기 일본의 도서관정책은 연합군의 민간정보교육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CIE)에서 담당하였다. 이 기간동안 CIE 교육과에는 P. Keeney, P. Burnette, J. Fairweather, J. Nelson 등 4명의 도서관 담당관(Library Officer)이 파견되어 도서관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根本彰 等(1999)⁸⁾에 의하면, 연합군이 추진 또는 지원한 도서관학 교육관련 정책은 ① CIE 도서관(CIE Information Center) 설치, ② 도서관 전문가를 포함한 미국교육사절단 파견, ③ 미국도서관사절 및 특별고문 파견에 의한 국립국회도서관 창설·정비, ④ 도서관법 제정, ⑤ 교육지도자강습(Institute for Educational

6) 1892년 창설 당시의 명칭은 '일본문고협회'였으며 1908년 '일본도서관협회'로 개칭하였다.

7) 당시의 학제는 복선형으로, 소학교 6년을 마친 후 진급하는 중학교(여자는 고등여학교)는 4년제였다.

8) 根本彰, 三浦太郎, 中村百合子, 古賀崇. 1999. "政策文書に見るGHQ/SCAP民間情報教育局の圖書館政策." 『東京大學大学院教育學研究科紀要』. 39: 453-478. <표 1>은 이 논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Leadership: IFEL)과 도서관학 강습회 운영, ⑥ 일본도서관학교 설립계획 추진으로 전개되었다(〈표 1〉 참조). 이러한 정책은 교육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으며, 점령기 전체의 일관된 정책 흐름의 기초가 된 시기는 점령 전기로, 특히 초대 도서관 담당관 Keeney의 역할이 매우 컸다. Keeney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서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의 권고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고, 2차대전 이전에 존재했던 일본식 사서교육기관 ‘도서관 강습소’를 입학자격이나 강습기간 등의 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서관직원 강습소’로 재창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 중 연합군의 도서관학 교육 정책이 ⑥의 JLS 설립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점령 전기에 파견된 ②의 미국교육사절단, ③의 도서관사절 및 특별고문의 권고가 직접적,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①의 CIE 도서관⁹⁾은 미국식 선진

도서관 서비스 개념을 일본에 소개하고 전파하는데 기여했으며, JLS 설립 후 학생들의 도서관 실습장소로 활용되었다. JLS 이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형성 및 정착에는 대학과정의 사서강습을 규정한 ④의 도서관법 제정과 ⑤의 강습이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3.1.2 미국교육사절단 파견

연합군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교육개혁을 위해 1946년과 1950년 2차에 걸쳐 미국교육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1946년 3월 5일 일본을 방문한 제1차 교육사절단에는 ALA의 요청에 따라 미국도서관학교협회장인 Leon Carnovsky가 포함되어 있었다. 1946년 3월 30일 제출된 교육사절단의 최종보고서에는 Carnovsky와 Keeney의 의견이 반영되어, 고등교육 부문에서 대학도서관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서 훈련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우수한 도서관시설을 갖고 있는 대학교에 도서관학

〈표 1〉 연합군의 도서관학 교육 정책

구분	시기	주요 도서관정책	도서관 담당관
전기	1945.10 ~ 1947.봄	- 민간정보교육국(CIE)도서관 설치(1945.11.15~) -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에 도서관 전문가 Leon Carnovsky 포함	- Phillip O. Keeney (1946.3~1947.5)
중기	1947.봄 ~ 1949.봄	- 미국도서관사절(1947.12.14~1948.2.8) 및 특별고문 파견(1948.7.7~9.11) - 국립국회도서관법 제정(1948.2), 국립국회도서관 설립(1948.6)	- John Nelson (1947.5~10) - Paul J. Burnette (1947.10~1949.3)
후기	1949.봄 ~ 1952.4	- 도서관법 제정(1950.4) - 교육지도자 강습(IFEL) 도서관학 강습회 운영 -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 창립(1951.4)	- Jane Fairweather (1949.4~9) - John Nelson (1949.9~1950.8)

9) 미국무성이 패전국과 공산권 국가들을 위한 대외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도서관이다. 일본내 23개 도시에 설치하였으며, 점령기 종료 후 ‘미국문화센터’로 개칭되었다.

교(library school)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伊ヶ崎曉生, 吉原公一郎 1975, 113)이라고 기술된 부분이다. 이는 도서관정책의 근간이 되는 점령초기에 종합대학에 도서관학교 설치를 처음 권고한 것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연합군의 도서관학 교육정책은 점령기 동안 일관되게 나타나, 궁극적으로는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의 설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3.1.3 미국도서관사절 및 특별고문 파견

1947년 12월 14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설립을 돕기 위해 미국의회도서관(LC) 부관장 Verner W. Clapp과 ALA 동양부 위원장 Charles H. Brown이 도서관사절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LC를 모델로 한 국립국회도서관 창설과 국립국회도서관법 원안 책정 등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1948년 2월 8일 연합군에 제출한다. 보고서 중 제8장 사서교육에는 일본의 사서직 문제 전반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즉, 당면한 미래의 계획으로 문부성 도서관직원 양성소의 대학 부설, 종합대학과 연계된 도서관학교 설치, 사서훈련과정을 조직할 미국인 고문 파견 등을 권고하고 있다(國立國會圖書館 1979, 426-465).

이 권고에 따라 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학교장이자 도서관장인 Robert B. Downs가 연합군 특별고문으로 파견되었다. Downs는 1948년 7월 7일부터 약 2개월에 걸친 조사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 후, 9월 11일 최종보고서(일명 'Downs Report')를 제출한다. 사서교육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제7장 인사(personnel) 부문이다. 여기서의 일본 사서직 최대의 약점으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서 및 훈련기관의 부족을 들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New Library School'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일본에 대학수준 이상의 도서관학교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종합대학에 설치할 것, 새로 설치할 도서관학교는 전문적 지위의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 이상적으로는 대졸 후 1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되 당장은 대학의 상급학년에 설치할 것 등이다(國立國會圖書館 1979, 393-425). 여기서 책임있는 전문적 지위와 하급 지위 즉 사무보조원적, 준전문적 지위를 구분한 것도 중요하다. 즉, Downs는 일본의 사서 교육기관(2년제 문부성 도서관직원 양성소)을 준전문적 사서교육기관으로 보고, 미국식 도서관학교는 전문적 지위를 갖는 사서교육기관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1946년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 방문시에는 문부성 도서관직원 양성소가 설립되기 전이다. 교육사절단의 권고는 당시 미국의 일반적 도서관학 교육제도로서 종합대학교내의 도서관학교 설치만을 권고한 것이었으나, 도서관사절과 특별고문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도서관직원 양성소가 설립되어 있었으므로 미국식 교육기관과 일본식 교육기관의 지위를 구분하고 교육사절단의 권고를 보다 구체화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서관직원 양성소를 대학교에 부설하도록 한 것은 당시 미국식 교육제도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Williamson Report' 이후 사서교육기관은 종합대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이다.

3.2 일본 정부의 정책

3.2.1 사서교육기관의 재창립

제2차대전 이전에 24년간 존속했던 문부성

‘도서관 강습소’가 1947년 5월 제국도서관 부속 ‘도서관직원 양성소’(이하, 양성소)로 재창립되었다. 이는 도서관담당관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강습소의 입학요건이 중졸 이상 1년제 과정이었던데 비해, 양성소는 전문학교 졸업 이상 2년제 고급사서 과정으로 승격된 사서교육기관이었다. 학력요건의 강화로 인해 1949년 3월에 배출된 제1회 졸업생은 10명에 불과하였다([日本圖書館協會] 1949, 42).

1949년 국회도서관에 통합된 국립도서관(제국도서관)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바뀌게 됨에 따라, 양성소는 문부성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입학자격은 전문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오히려 한 단계 퇴보하였다.

2차대전 이전의 강습소가 고등학교 2년 수료 수준에 사서자격을 얻지 못했던 데 비하여, 양성소는 2년제 대학과 동등 수준이면서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후의 도서관학 교육은 크게 발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도서관 전문가들의 권고와 같이 대학교 내에 설치되지 못하여 다른 학문 분야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고, 중등교육 수준에서 고등교육 수준으로 승격되기는 했으나, 2차대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규 학교제

도 속에 포함되지 못한 채 직업학교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한계였다.

3.2.2 도서관법 제정

1950년 4월 30일 도서관법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2차대전 이전에 제정된 도서관령 등 도서관 관련 법률은 모두 폐지되었다. 도서관법은 사실상 공공도서관에 관한 법률로, 국립도서관의 무료제를 천명하고 사서 자격 및 자격취득 방법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도서관법 제5조에는 사서 및 사서보의 자격을, 제6조에는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을 규정하고, 강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법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었다.

1950년 도서관법에 규정된 사서(보) 자격을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① 사서는 대졸(단기대학 포함) 학력의 일반적 교양 + 사서강습, ② 사서보는 고졸 학력 + 사서보 강습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었다(〈표 2〉 참조). 그리고 학력미달의 현직자들을 위한 경과조치로 1955년까지 사서 강습을 통한 자격취득이 가능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첫째,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강의하고 소정의 학점 취득자에게 사서라는 법정자격을 부여한

〈표 2〉 사서 및 사서보 자격 취득요건

자격 종류	최저 학력요건	자격 취득방법	취득 학점수
사서	대학 졸업	사서 강습	15학점 ¹⁰⁾
	대학 졸업	대학에서 도서관 관련 과목 이수	규정 없음
	고등학교 졸업	사서보 3년 근무 + 사서 강습	15학점
사서보	고등학교 졸업	사서보 강습	15학점

10) 현행 규정은 2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도서관법시행규칙의 개정(2009)에 따라 대학에서의 도서관 관련과목 이수는 2012년 4월부터 최저 24학점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다는 점에서 교육행정 및 대학에서 도서관학이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 둘째, 고등교육 진학률이 매우 낮은 당시 사서는 고학력자여야 한다는 것이다(日本圖書館情報學會 研究委員會 1998, 120).

반면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서자격을 대졸로 규정하면서도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졸이라는 규정의 의미는 결국 2년제 단기대학 졸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도서관법 소관기관인 문부성의 양성소가 2년제 단기대학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서자격에도 학력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의 도서관 관련과목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대학측에서 강습과목에 해당한다는 문부성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강습기준이 대학의 교육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¹¹⁾ 이러한 도서관법의 맹점은 4년제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사실은 법조항의 미묘한 차이가 후에 커다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법률조항의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주는 것으로, 도서관학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3.2.3 대학과정 강습 실시

1945년 同志社대학에 도서관학 강습소가 개설되고, 1948년 京都대학 부속도서관에 1년과정의 도서관학교과가 개설되었다. 그밖에 關西대학, 東洋대학, 天理대학 등에서도 도서관학 강습

회가 개최되었다(大佐三四五 1954, 148-153). 1949년에는 2년제 대학에 준하는 문부성 도서관직원 양성소가 재창립됨으로써,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사서교육은 대학과정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1948년에는 문부성과 연합군 민간정보교육국(CIE)이 대학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도자강습(IFEL)을 실시하면서 강의과목에 도서관학이 포함되었고, 1950년-1951년(제5기-6기)에는 독립된 도서관학 강습으로 발전하였다.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칙(1949.11) 제정 후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과목(교직교양과목)에 도서관학(1학점)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사범계 대학에 도서관학 강의가 확산되었다. 이는 훗날 대학에서 사서강습을 실시하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였다.

1951년 도서관계에서도 도서관학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도서관 지도자강습이 동경대학교 게이오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사서(보)자격 취득을 위한 15학점의 강습이 1951년 제국대학 계열 5개대학에서 실시되고, 점차 전국의 신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확산되었다(日本圖書館情報學會 研究委員會 1998, 121-123). 이로써 기존 도서관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된 5년간 많은 사서(보)가 양산되었고, 사서강습은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자격취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남게 되었다. 임시조치로 실시되었어야 할 사서강습이 도서관법에 남아 있고 이수기준은 최소 15학점에 불과했기 때문에, 도서관법에 의거한 이러한 도서관학 교육모델은 단기간

11) 사서강습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日本圖書館情報學會 研究委員會. 2006. 『圖書館情報專門職のあり方とその養成』. 東京: 勉誠出版, 8-22.
② 鹽見昇, 山口原治郎, 共編. 2001. 『圖書館法と現代の圖書館』.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27-142.

의 사서강습과 사서자격과정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3.3 연합군과 일본 정부의 정책 분석

3.3.1 연합군과 일본 정부 정책의 영향관계
연합군의 일본 점령정책의 기본적 성격은 간접 통치방식이었다. 그러므로 도서관정책 또한 연합군의 권고나 조언을 통해 일본이 그를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연합군의 사절단 및 특별고문의 권고는 일본의 사서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지침을 제공해 주었으며,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합군이 실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정책은 그러한 기본적인 틀 아래에서 연합군에 배치된 도서관 담당관의 지도·조언 및 일본 정부당국의 의견 조율을 거쳐 일본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었다.

연합군이 처음부터 일본의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다. 연합군은 일본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도서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도서관 전문직인 사서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었다. 미국정부가 파견한 교육사절단과 도서관사절은 '종합대학교에 도서관학과의 설치'라는 포괄적 권고를 제시했고, 특별고문은 구체적 방안으로 대학 상급학년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권고는 게이오대학 3, 4학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실현되어 연합군의 일본 도서관학 교육정책이 완성된 것이다.

일본정부가 추진한 사서교육기관의 재창립,

도서관법 제정, 대학의 사서강습 실시는 연합군과 일본 정부당국(문부성)의 협력 또는 공동 개최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부성 도서관직원 양성소는 도서관 담당관의 지도에 의해 탄생하였으나 미국측이 정책적으로 의도한 사서교육 기관은 아니다. 도서관법도 도서관 담당관의 지도에 힘입어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석사과정 교육으로 이행하고 있던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제도를 반영시키지는 못했다. 도서관법 시행에 따른 사서강습은 문부성과 연합군의 공동 개최로 시작되어 대학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도입된 학부과정 전문교육의 보편화에는 저해요인이 되었다. 즉, 연합군의 정책이 일본정부의 정책에 완전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고, 연합군의 추진정책 또한 일본정부가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3.3.2 연합군의 영향에 의한 정책의 연속성
교육방식과 법제도면에서 볼 때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정책은 2차대전 이후 역사적으로 단절된 형태로 나타났다. 도서관법은 2차대전 이전의 법률과 달리 도서관의 전문적 직원을 사서와 사서보로 등급화하고 자격취득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2차대전 이전의 사서교육이 주로 단기강습에 의존했고 사서자격은 학력이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으나, 2차대전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을 통한 취득 방식으로 바뀌었다. 전후의 이러한 교육방식과 법제도의 개혁은 2차대전 이전의 도서관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교육제도 면에서 볼 때 전후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정책은 전통적 제도를 승계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제도를 이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전통적 교육제도인 문부성 도서관직원 양성소는 2차대전 이전보다 학력요건 및 교육기간이 한 단계 승격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설립주체, 독립된 교육기관, 직업학교로서의 성격, 교육내용의 유사성 등으로 볼 때 역사적 연속성을 보인다. 미국은 양성소를 준전문직, 보조적 사서교육기관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식 교육제도에 편입시키거나 확장하려 하지 않았다. 점령기간 연합군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학부과정 도서관학교 설치가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로 실현된 것은 일본의 전통적 교육제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방식의 도입인 것이다.

4. 'Japan Library School' 프로젝트의 전개

ALA는 미육군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Japan Library School'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1951년 게이오대학에 도서관학과(JLS)를 설립하였다. JLS 프로젝트는 록펠러재단의 원조로 1956년까지 지속되었고, 이후 JLS는 게이오대학의 책임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게이오대학 모델은 일본 내에 확산되지 못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은 JLS 설립 이전에 제정된 도서관법이 게이오대학 모델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4.1 육군성·ALA의 JLS 설립계획

4.1.1 ALA의 프로젝트 참가 배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합군의 정책에서는 미국의 도서관학교와 같은 사서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었고, 일본에 파견된 도서관 전문가들은 ALA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의 권고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결정적 요인은 잉여예산 처리문제에서 비롯되었다.

JLS 교장(director)¹²⁾ Robert L. Gitler의 회고록에 의하면, 1950년초 연합군 민간정보교육국(CIE)을 관할하는 미육군성의 Van Wagner 대령으로부터 남은 예산을 CIE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소진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CIE 정보과장 Don Brown이 그 예산을 사서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Brown은 전문사서는 아니지만 뉴욕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 마인드를 가진 도서관 지향적인 인물이었다(Gitler, Robert 1999, 39-40). Brown이 연합군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도서관 및 사서의 지위향상은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일본에 사서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육군성은 Brown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의 저명한 대학내에 도서관학교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도서관 전문단체인 ALA에 조사를 의뢰하여 프로젝트 추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다(ロバート・L・ギトラ- 1984, 3-4).

12) 일본에서는 'director'를 '주임교수'로 표기하였다. '도서관학과'로 표기하면 '학과장'이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되나, JLS를 '일본도서관학교'로 표기하므로 본고에서는 '교장' 또는 '학교장'으로 표기한다.

4.1.2 ALA의 프로젝트 전개과정 및 내용

ALA는 일본의 도서관학교 설치 후보대학을 조사하기 위해, 훌륭한 저서와 도서관 실무경험이 풍부한 일리노이대학 도서관학교장 Robert Downs를 지명하였다. Downs는 1950년 6월 민간정보교육국(CIE) 책임자와 6개 대학(東京, 慶應, 早稻田, 日本, 京都, 同志社)을 방문한 후, 7월에는 동경대학을 최종 후보지로 추천하는 보고서를 ALA에 제출하였다.

Downs가 동경대학을 추천한 이유는 수도권에 권위있는 국립대학이야말로 전국의 우수한 학생을 가장 쉽게 모집할 수 있고, 국립대학이므로 미국의 예산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존속에 유리하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경대학이 제시한 안은 기존 학부의 학과 또는 독립된 연구소(institute)로 하고 추후에 독립된 전문대학원으로 만든다는 것이어서 Downs는 그 존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고, 결국 JLS 초대 교장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였다(吉田政幸, 山田順一 2001, 245; Downs, Robert 1958, 399-405).

1950년 8월 30일에는 ALA와 육군성간에 'JLS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 때 ALA가 작성한 'JLS 설립 제안서'(Proposal for Establishment of a Japanese Library School)는 향후 JLS 설립 및 전개에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수준: 당분간 학부에 설치하고, 향후 대학원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학부 3, 4학년부턴 입학하도록 하며, 학부졸업 자격의

일부로 도서관학 코스를 인정해도 된다.

- 교직원: 학교장 및 교원 4명은 미국에서 파견한다. 동양자료와 일본 및 중국의 서지학을 담당할 일본인 강사 정규직 1명, 비정규직 약간명을 선발한다. 그밖에 일본인 사서, 통역, 번역자, 비서, 사무원 등이 필요하다.
- 학생: 조속한 시기에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바람직한 입학생의 순서는 장차 도서관학 교수가 될 사람, 연간 수업을 희망하는 현직 사서, 현장경험이 없는 학생, 1학기 청강만 희망하는 사서의 순이다.
- 일정: 1951년 4월 1일~1952년 6월 30일까지 2학기 30학점을 인정한다. 15개월 3학기제가 바람직하나, 곤란하다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사서를 대상으로 1951년 여름 6~8주간 하기강습을 개최한다.
- 커리큘럼: 일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원, CIE 직원, 소속대학이 연계하여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이를 ALA 국제관계위원회(IRB)가 승인한다.
- 학교의 소속: 후보대학은 동경대, 京都대, 게이오대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Downs Report에는 동경대가 제1후보였으며, 그 다음 순으로 게이오대, 京都대를 추천한다.
- 자문위원회: 학교 설립계획 추진 자문위원회를 미국과 일본에서 발족시킨다.¹³⁾

이에 따라, ALA는 1950년 9월 Downs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국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여명의 후보자 중 Robert L. Gitler¹⁴⁾를 JLS

13) Report, 30-Aug. -1950. "Proposals for Establishment of a Japanese Library School." ALA Archives, RS #2/4/6 Box22, Basic Documents, Master File, 1950-1952. 재인용: 根本彰, 三浦太郎 2002, 481-482.

교장으로 선발하였다. Gitler(1909~2005)는 러시아계 미국인으로 버클리대에서 사회학(BA) 및 도서관학(BS in LS) 학사를 마친 후 콜롬비아대에서 석사학위(MA in LS)를 취득한 인물이다. 그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산호세주립대 강사, 콜롬비아대 방문교수를 거쳐 워싱턴대 도서관학교장을 6년째 역임하고 있었다.¹⁵⁾ ALA가 Gitler에게 부여한 임무는 교수진 선발과 JLS 설치대학 선정이었다.

위의 제안서 내용 중 JLS를 학부과정에 설치하고 학부 3, 4학년부터 입학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Downs의 1948년 권고와 일치하며 그 내용이 좀 더 확장되고 구체화된 것이다. 실제로 게이오대 JLS 설립에는 ① 일본내 자문위원회 발족과 ② 커리큘럼의 ALA 승인을 제외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것은 JLS 교장이 선정된 이후 ALA의 지나친 관여를 우려한 연합군이 JLS 프로젝트를 연합군의 'SCAP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ALA는 조언적 역할만 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根本彰, 三浦太郎 2002, 483). 이것은 ALA의 직접 개입이 줄어들려는 데 반해 JLS 교장의 권한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의 창설

4.2.1 선정배경

1950년 12월 30일 일본에 도착한 Gitler는

Downs가 방문했던 5개 대학(日本대 제외)을 재조사한 후, 서양적 교육이념, 입지조건 등 16개 항목의 평가를 토대로 게이오대학을 선정한다(Gitler, Robert 1999, 65-68).¹⁶⁾

동경대는 총장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일본 최고학부로서의 권위, 안정적인 재정상태, 우수한 도서관 등 가장 유력한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feudal)” 체제 속에서 미국의 이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대학의 일부가 아닌 “연구소” 형태에 대한 우려, 이에 따른 편입 및 학위수여 불가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탈락되었다.

게이오대학은 일본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사립대학이다. 설립자 福澤諭吉은 1858년 東京에 네덜란드 어학교인 蘭學塾를 열고, 1868년 게이오대학으로 개칭하였다.¹⁷⁾ 福澤諭吉은 『서양사정』 등의 저서를 통해 서양문명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일본 개화기의 교육자,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Gitler는 『福翁自傳』을 통해 그의 대학 설립이념과 전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慶應義塾大學 三田評論編輯委員會] 1956, 20-21).

게이오대학 당국 또한 JLS의 적극 유치를 추진하였다. 다른 대학보다 빠른 1950년 7월 도서관학과를 문학부 소속 학과로 승인하겠다는 총장의 의사표명이 있었고, 外事부장 清岡暎一은 “도서관학 강의실 2개를 준비했다”고 Downs에게 서신을 띄울 만큼 적극적이었다(根本彰, 三

14) ALA 뉴스에 JLS 설립 관련기사가 게재되고 Robert L. Gitler가 표지인물로 실려 있다.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0, “Japanese Library School.” *ALA Bulletin*, 44(11): 458.

15) 게이오대학 도서관·정보학과 소장 이력서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16) Gitler가 ALA에 1월 21일자로 보낸 보고서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the Selection of the University in which the SCAP-ALA Sponsored Japan Library School is to be Located’ 원문이 회고록에 수록되어 있다.

17) 慶應義塾大學 Home page, [cited 2011.4.13]. <http://www.keio.ac.jp/ja/about_keio/index.html>.

浦太郎 2002, 482).

Gitler는 게이오대학의 도서관 장서에 대해 “형편없었다(very terrible)”고 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오대학이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서양적 교육이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16개 평가항목 중 ‘서양적 교육이념’을 첫째로 꼽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항목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립자의 이념을 계승한 서양화된 사립대학인 만큼 관료화, 경직화된 동경대와는 달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미국인 교수진의 발언권과 미국식 교육방식이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학측의 적극적인 유치, 즉 정식 학과로 설치한다는 게이오대학의 약속은 미국인 교수진의 철수 후에도 학과의 존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2.2 전개과정 및 내용

(1) JLS 교직원 채용

Gitler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교수진 선정이었

다. 채용기준은 ① 해당분야의 1인자, ②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②는 진주군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 고려 및 일본에 편견이 없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였다. 교수진은 현직교수 3명과 교수경험이 없는 현장사서 2명으로 구성되었다(〈표 3〉 참조). 그러나 Gitler의 자서전에 기술된 내용과 교수진의 인적 구성이 기틀러의 졸업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기용¹⁸⁾된 것으로 보아, ①의 기준이 충족된 것이라기보다는 Gitler의 학맥과 인맥을 활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수업진행에 필요한 통·번역자는 CIE도서관에서 추천받은 고문(advisor)을 중심으로 4명씩 채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성된 교직원원은 미국인 교직원 6명, 和漢書 분류·목록 담당 일본인 강사 2명, 일본인 통·번역자 8명, 사무원 등이었다(ロバート・L・ギトラ-1984, 5-7). 이 교직원 구성은 일본인 사서가 미국인 사서로 대체된 것 외에는 ALA의 제안서 내용과 일치한다.

〈표 3〉 JLS 초대 미국인 교직원¹⁹⁾

성명	담당분야	소속기관명
Robert L. Gitler	학교장	Univ. of Washington 학과장, 교수
Bertha M. Frick	분류·목록	Columbia Univ. 부교수
Frances N. Cheney	참고봉사·서지	Peabody 사범대 부교수
Edgar R. Larson	시청각자료	LC 발주부 Bibliographer-Searcher
Hannah Hunt	아동·청소년서비스	Rockford 공공도서관 청소년서비스 담당
Phyllis J. Taylor	JLS 도서실 사서	하와이도서관 참고봉사·대출 Assistant

18) Hunt(웨스턴 리저브대)를 제외한 Larson, Taylor는 Gitler의 워싱턴대 제자이며, Cheney, Frick은 콜롬비아대 석사임.

1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1. “Japanese Library School Faculty Appointments.” *ALA Bulletin*, 45(1): 10.

(2) 학생 선발 및 강의내용

1951년 4월, “일본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대학수준의 사서양성기관”([慶應義塾大學 三田評論編輯委員會] 1951, 17)으로서, 게이오대학 문학부장과 도서관학교장의 공동운영 체제하에 도서관학과가 창설되었다.

입학생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누어 선발하였다. 1951년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학위과정 입학자격은 ① 신제대학 2년 수료자, ② 구제 고교 졸업 및 구제 대학 예과 수료자, ③ 구제 전문학교 졸업자, ④ 학부 졸업자, ⑤ 상급 수준과 동등 이상의 과정 수료자로, 필수과목 24학점을 포함 연간 30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비학위과정은 도서관경력 또는 특별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최소 30학점을 취득하면 수료증을 수여한다고 하였다(Keio-Gijuku [1951]).

1951년도 학생명부에 의하면, 응시자 113명²⁰⁾ 중 학위과정 42명, 비학위과정 17명, 합계 59명이 입학하였고, 학력에 따라 전문학교 졸업 또는 대학2년 수료자는 3학년 편입(33명), 대학3년이상 수료자는 4학년 편입(9명)이 확정되었다. 이 중 전현직 사서가 약 60%(32명)를 차지하고 그 중 CIE 도서관 근무경험자는 11명에 달한다. 게이오대학 출신은 단 1명뿐이었다.²¹⁾ 제1기 졸업생은 53명(비학위과정 15명 포함)으로, 이 중 10명이 대학교수가 되었다(原田隆史 1991, 77-79). 이외에도 여름방학에는 전국 공립도서관 관장 및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문부성 주최 하기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게이오대학의 JLS 학생선발 및 학사 일정은 기본적으로 ALA의 제안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다. JLS를 학부과정에 설치하여 3, 4학년부터 입학(편입)하도록 한 점, 학사일정²²⁾을 1951년 4월~1952년 6월로 잡은 점, 도서관학 교육을 2학기제 30학점으로 설정한 점, 학생의 입학순서를 교수가 될 사람과 현직사서를 우선순위로 한 점, 공립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강습을 개최한 점 등은 이미 ALA의 제안서에 들어있던 지침이자 기본방향이었다.

커리큘럼은 <표 4>와 같이 미국의 전형적인 도서관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공공도서관 대상의 커리큘럼이 적용되었다(細野公男 1991, 1-8). 필수과목 12과목(24학점)과 선택과목 7과목(14학점)에 실습 및 견학이 부가된 이 커리큘럼은 10년 이상 본질적인 변경없이 지속되었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하되, 미국인 교수마다 일본인 통역을 정하여 교원과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도왔으며, 교재는 영어와 일어로 된 등사판 인쇄물이었다. 통역 및 번역자를 매개로 한 강의 진행은 이미 교육지도자강습(IFEL)에서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던 방법으로, ALA 제안서에서 권고한 통·번역자 채용은 이러한 강의방식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4.2.3 루펠러재단의 원조에 의한 JLS 프로젝트 연장

JLS 프로젝트는 1952년 6월까지 진행될 예

20) [Keio University]. [1952]. *Keio University Faculty of Literature Japan Library School Announcement Catalogue 1952-1953*(등사판 인쇄물).

21) [Keio University]. [1951]. *The Name List of Japan Library School*(등사판 인쇄물).

22) 일본의 일반적 연간 학사일정은 4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3월에 끝난다.

〈표 4〉 게이오대학 JLS 강의내용²³⁾

구분	학과목	담당교수	학점수
필수과목	도서관, 사서, 사회	Robert L. Gitler	2
	사회(성인)교육과 도서관	Edgar R. Larson	2
	도서관의 조직, 관리, 경영	Frances N. Cheney	2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법	Bertha M. Frick	3
	일본·중국자료의 분류목록법(Part I)	土井重義(동경대 사서관)	1
	도서관자료의 고급 목록분류법	Bertha M. Frick	3
	일본·중국자료 분류목록법(Part II)	土井重義	1
	정보원 및 서지적 자료와 그 취급법	Frances N. Cheney	3
	일본·중국자료(Part I)	石田幹之助(일본대 교수)	1
	정보원·서지적 자료와 그 취급법(참고봉사 포함)	Frances N. Cheney	3
	일본·중국자료(Part II)	石田幹之助	1
선택과목	아동·청소년 서비스	Hannah Hunt	2
	도서선택 및 독서 지도	Cheney, Larson	2
	학교도서관과 그 경영	Hannah Hunt	2
	아동문학 및 스토리텔링	Hannah Hunt	2
	도서관 시청각자료	Edgar R. Larson	2
	농어촌 도서관 서비스	Hannah Hunt	2
	도서 및 도서관사	Bertha M. Frick	2
필수(별도)	사서교육: 도서관학교와 학생	Cheney, Gitler, 직원	2
	실습 및 견학(하계방학)	Gitler, 직원	4

정이었으나, 1952년 4월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와 더불어 연합군이 폐쇄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게이오의 재정상태는 외부의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미국인 교수진을 일본인으로 대체하는 문제와 JLS의 기반 확립에 더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Gitler는 대학당국과 함께 록펠러재단에 재정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록펠러재단은 1952년 6월~1956년 6월까지 총 14만 2,800달러의 자금 지원을 승인하였다(根本彰, 三浦太郎 2002, 485-486).

록펠러재단 원조의 주요조건은 미국인 초빙 교수를 매년 1명씩 줄여나감으로써 삭감되는

자금의 감소분을 게이오가 책임지도록 하고, 교수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JLS 프로젝트가 연장된 4년간 미국인 교수진은 매년 1명씩 감소되었고(〈표 5〉 참조), 그를 대신한 일본인 교수로 1954년 藤川正信(제1기생)을 필두로 1956년에는 5명 전원이 일본인 교수진으로 구성됨으로써, 록펠러재단의 지원조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이처럼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창설되었으나 일본 도서관사 또는 도서관학 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는 정규 학교제도 속에 포함된 최초의 도서관학 교육기관이자 4

23)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Keio-Gijuku 1951년도 모집요강: 清岡映一, 1952. “我が國最初の圖書館學科.” 『三田評論』, 52: 47.

〈표 5〉 록펠러재단의 원조에 의한 JLS 초빙교수²⁴⁾

연도	방문교수	담당과목
1952-1953	Norma Cass Everett T. Moore Jean Macalister Moore Georgia Sealoff	분류·목록법 사회교육과 도서관, 도서관관리, 도서선택 참고자료·조사법, 도서 및 도서관사 학교도서관, 아동청소년도서관, 관외활동
1953-1954	Georgia Sealoff Anne M. Smith Luth French Strout	학교도서관, 아동청소년도서관, 관외활동 참고자료·조사법, 도서관관리 분류·목록법, 도서 및 도서관사
1954-1955	George S. Bonn Mebel A. Turner	분류·목록법, 도서관관리 학교도서관, 아동청소년도서관, 관외활동
1955-1956	Robert L. Gitler	도서관학요론, 도서관학교육, 도서관학실습

년제 학부과정 전문교육의 효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전통적 교육수준에서 벗어나 도서관학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4.3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전파

4.3.1 게이오대학 도서관학 교육의 발전²⁵⁾

이로써 JLS 프로젝트는 일단락되었으나, 매년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는 록펠러재단의 원조는 1961년까지 계속되었다.²⁶⁾ 이후 게이오대학은 1960년대에 3가지 커다란 변혁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1962년 편입 허용이라는 특례조치를 폐지하여 도서관학과도 게이오대학의 일반 학사행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日本圖書館情報學會 研究委員會 1998, 127). 이는 록펠러재단의 원조를 마지막으로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째, 1967년 석사과정을 일본 최초로 개설하였다. 이는 “향후 대학원 교육으로 발전시킨다”고 한 ALA의 제안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4년제 도서관학과로서 게이오대학 모델이 일본 내에 거의 보급되지 못했고, 사서자격 기준이나 임금체계 개선 및 사회적 인식의 큰 변화없이 석사과정을 개설한 것은 도서관학의 일반적 교육수준을 높였다기보다는 연구자 양성의 의미가 더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부과정 커리큘럼을 개정하고 1968년부터 학과 명칭을 ‘도서관·정보학과’로 개칭하였다. 석사과정 뿐만 아니라 학부에도 정보학 개념을 전격 도입하면서 이를 계기로 정보학에 치중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1993년에는 학부과정 전공을 도서관, 정보미디어, 정보검색의 하위코스로 세분하고 그에 따른 새 커리큘럼을 실시하였다. 졸업요건은 도서관학 전공 48학점이 필수이다. 도서관법상 사서

24) 게이오대학 JLS의 연도별(1952-1956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5) 慶應義塾大學 文學部 圖書館・情報學專攻 Homepage. [cited 2011.4.13].
〈<http://www.flet.keio.ac.jp/dep/landi.html>〉.

26) 1957~1961년에 초빙된 교수는 Guy R. Lyle, John M. Cory, Alice Lohrer, James W. Perry, Robert L. Gitler였으며, 약 3개월간 강의와 특별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Keio University]. [1961]. *Keio University Faculty of Literature Japan Library School Announcement Catalogue*(등사판).

자격 취득요건이 1950년대 15학점, 현행 20학점 인 데 비해, 게이오대학은 각각 30학점, 48학점이 필수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이오대학은 2배 이상의 전문교육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졸업후 진로도 전문도서관, 정보관련기업 등의 취업이 압도적으로 많아 전문적, 엘리트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3.2 일본내 도서관학 교육의 보급 현황

그동안 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은 소속학과와 전공의 변경, 강습이나 자격과정 신설 등의 증가와 같은 점진적 변화는 있었으나, 현시점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 실시대학 현황은 과거 60여년간 도서관학 교육 발전과정의 종합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문부과학성의 공개자료로 본 일본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학문으로서의 교육보다는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대학의 경영전

략으로서 자격취득을 위한 사서과정을 설치하는 대학이 증가하여, 약 88%를 차지하는 강습기준의 대학교육이 일본 도서관학 교육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게이오대학 모델의 4년제 전문교육은 증가했다고는 해도 현재 5개 대학²⁷⁾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부성 도서관직원 양성소가 4년제 도서관정보대학으로 승격된 것은 1979년으로, 정부 차원에서 4년제 전문교육 모델을 인정한 것도 불과 30여년 전이다. 이처럼 게이오대학 모델이 일본 내에서 보편화되지 못한 사실은 도서관학 교육이 학문으로서의 교육보다는 사서자격 취득에 치중되어 있는 일본의 교육현실을 말해 준다. 이는 앞서 지적한 도서관법의 사서자격 취득기준과 게이오대학 모델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한 대학의 도서관학 교육(강습) 실시, 엘리트적 요소가 강한 게이오대학의 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표 6〉 일본의 문헌정보학 교육 실시 현황²⁸⁾

대학 구분	전문교육*	강습기준 대학교육**	사서강습*	통신교육**	
4년제 대학	국립	1	10	-	-
	공립	-	5	-	-
	사립	4	141	12	10
2년제 대학	공립	-	3	-	-
	사립	-	78	1	2
계	5	237	13	12	

*은 2011년 기준, **은 2009년 4월 1일 기준

27) 전문교육 실시대학은 應應義塾大學, 筑波大學, 愛知淑徳大學, 駿河臺大學, 鶴見大學의 5개대학이다. 일본도서관협회가 5년마다 발행하는 『日本の圖書館情報學教育』(2005년도)에 따르면 전문교육 실시대학은 8개대학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르며, 이는 각 대학이 설문지에 응답한 결과를 그대로 게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 다음을 토대로 작성. 文部科學省. 2009. 司書講習相當科目の單位認定大學一覽(平成21年4月1日現在). [cited 2011. 4.13]. <http://www.mext.go.jp/a_menu/shougai/gakugei/shisyo/04040502.htm>. ; 文部科學省. 2011. 平成23年度司書及び司書補の講習實施大學一覽. [cited 2011.4.13].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ldfile/2011/04/07/1260111_01_1.pdf>.

또한 ALA가 제안한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 모델이 “향후 대학원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석사과정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게이오대학 모델보다 도서관법에 규정된 사서자격 취득모델이 일본 내 전파에 성공함으로써 강습기준의 대학교육 모델이 고착되었고,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은 학문으로서보다 사서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존재함으로써 대학원교육이 연구자 양성이란 인식이 강한 일본에서는 석사과정 교육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또한 낮은 급여 등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트교육을 받은 고급사서의 공급과 현실적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강습기준의 대학교육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된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제도는 사서자격 취득자의 양산 및 도서관학 교육의 저변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타 전공자의 도서관학 학점 이수로 주제전문사서 제도 실시의 가능성을 높인 점은 도서관학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증 소지자의 과잉 배출, 그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지나친 불균형,²⁹⁾ 진지한 학문적 영역으로서보다는 자격취득 방법으로서의 인식 확대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 결 론

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형성과정

은 미국 도서관학 교육정책의 실현과정이었다.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는 미국의 의도하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모델로서 의의가 있으나 미국식 모델의 일본 내 전파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도서관학 교육정책의 사적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법제화 측면에서, 2차대전 이후 도서관법에 규정된 사서자격과 자격취득을 위한 도서관학 교육은 2차대전 이전의 정책과는 역사적으로 단절된 것이었다. 교육제도적 측면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정부가 재창립한 사서교육기관(문부성 도서관직원 양성소)은 2차대전 이전의 전통적 비정규 교육제도가 승계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정책으로 추진된 사서교육기관(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은 일본의 전통적 교육제도와는 전혀 다른 고학력 정규 교육제도였다.

둘째,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는 2차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추진된 도서관학 교육정책의 산물로, 1951년 일본 최초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기관으로 창립되었다. 초기 ‘Japan Library School’ 프로젝트는 미육군성과 ALA의 계약 체결로 추진된 15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었으나, 록펠러재단의 재정지원으로 1956년에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게이오대학 도서관학과가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록펠러재단의 추가지원이 종료된 1961년 이후로, 이후 전문적, 엘리트적 요소가 강한 교육을 특징으로 발전해 왔다.

셋째, 기존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모델과 게

29) 日本圖書館情報學會 研究委員會(2006)에 의하면, 연간 사서자격증 취득자는 12,000명 이상이며, 이 중 정규직 사서 채용자수는 100명에도 못 미친다.

이오대학 모델의 관계이다. 현재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모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강습기준의 대학교육 모델(237개교)이다. 게이오대학 모델(5개교)이 일본에서 보편화되지 못한 것은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정책이 변형 또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이오대학 모델이 일본 내 진파에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법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강습표준의 단기대학 졸업으로 하향수준의 사서자격을 규정한 도서관법이 게이오대학 모델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고, 둘째, 기존의 도서관학 교육이 게이오대학 모델의 성립 이전부터 도서관법을 근거로 확산되고 있었으며, 셋째, 공공도서관 사서를 목표로 하는 타 대학과 달리 엘리트적 요소가 강한 게이오대학

의 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게이오대학 모델은 정규 학교제도 속에 포함된 최초의 도서관학 교육기관이자 4년제 학부과정 전문교육의 효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도서관학 교육의 주류는 강습기준의 대학교육 모델로, 이는 주제전문사서제도 실시의 가능성, 사서자격 취득자의 양산 및 도서관학 교육의 저변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자격증 소지자의 과잉 배출과 그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학문이라기보다 자격취득 영역으로서의 인식 확대라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도서관학 교육정책 실시에는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확한 법조항 규정의 정비, 주제전문사서제도의 실시 가능성 등을 반면 교사 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慶應義塾大學. 2005. 慶應義塾・圖書館學科の創始. 『ステンドグラス』246. [online], [cited 2011.4.13]. <http://www.keio.ac.jp/ja/contents/stained_glass/2005/246.html>.
- [2] 慶應義塾大學 文學部 圖書館・情報學 專攻 Homepage. [online]. [cited 2011.4.13]. <<http://www.flet.keio.ac.jp/dep/landi.html>>.
- [3] 慶應義塾大學 三田情報センター. 1972. 『慶應義塾圖書館史』. 東京: 同センター.
- [4] [慶應義塾大學 三田評論編輯委員會]. 1951. 圖書館學科の創設. 『三田評論』, 550: 17.
- [5] [慶應義塾大學 三田評論編輯委員會]. 1956. ギトラ-教授に名譽博士-圖書館學校設立の功績に對し-. 『三田評論』, 571: 20-21.
- [6] 國立國會圖書館. 1979. 『國立國會圖書館三十年史 資料編』. 東京: 同館.
- [7] 權恩璟. 1981. 圖書館學 教育의 比較研究: 韓國과 日本의 教科課程分析을 中心으로. 『圖書館學論集』, 8: 1-29.
- [8] 根本彰, 三浦太郎. 2002. 占領期日本におけるジャパン・ライブラリ-スクールの創設. 『東京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 41: 475-489.

- [9] 根本彰, 三浦太郎, 中村百合子, 古賀崇. 1999. 政策文書に見るGHQ/SCAP民間情報教育局の図書館政策. 『東京大學大学院教育學研究科紀要』, 39: 453-478.
- [10] 吉田政幸, 山田順一, 共編. 2001. 『圖書館情報學の創造的再構築』. 東京: 勉誠出版.
- [11] 大佐三四五. 1954. 『圖書館學の展開』. 東京: 丸善.
- [12] 明星大學戰後教育史研究センター. 1993. 『戰後教育改革通史』. 東京: 明星大學出版部.
- [13] 文部科學省. 2009. “司書講習相当科目の單位認定大學一覽 (平成21年4月1日現在).” [online]. [cited 2011.4.13]. <http://www.mext.go.jp/a_menu/shougai/gakugei/shisyo/04040502.htm>.
- [14] 文部科學省. 2011. “平成23年度司書及び司書補の講習實施大學一覽.” [online]. [cited 2011.4.13].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ldfile/2011/04/07/1260111_01_1.pdf>.
- [15] 弥吉光長先生 喜壽記念會. 1977. 『圖書館と出版文化』. 東京: 同會.
- [16] 細野公男. 1991. “圖書館・情報學科40年をふりかえって.”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 1-8.
- [17] 岩猿敏生. 2007. 『日本圖書館史概説』. 東京: 日外アソシエーツ.
- [18] 鹽見昇, 山口原治郎, 共編. 2001. 『圖書館法と現代の圖書館』.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19] 岡田溫. 1981. 圖書館講習所からの60年. 『圖書館雜誌』, 75(6): 315.
- [20] 原田隆史. 1991. “慶應義塾大學文學部圖書館・情報學科の卒業生の進路.”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 77-79.
- [21] 伊東正勝. 1959. 圖書館員の教育をこう進めている-文部省圖書館職員養成所-. 『圖書館雜誌』, 53(4): 110-112.
- [22] 이수상. 1995. 도서관학 교육의 성립배경 비교연구: 미국, 한국, 일본의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학기논고집』, 5: 221-236.
- [23] 伊ヶ崎曉生, 吉原公一郎, 共編. 1975. 『米國教育使節団報告書』. 東京: 現代史出版會.
- [24] 日本圖書館情報學會 研究委員會. 1998. 『圖書館情報學のアイデンティテイ』. 東京: 日外アソシエーツ.
- [25] 日本圖書館情報學會 研究委員會. 2006. 『圖書館情報專門職のあり方とその養成』. 東京: 勉誠出版.
- [26] [日本圖書館協會]. 1949. 圖書館ニュース. 『圖書館雜誌』, 43(3): 42.
- [27] 日本圖書館協會. 1993. 『近代日本圖書館の歩み 本編』. 東京: 同協會.
- [28] 日本圖書館協會. 2006. 『日本の圖書館情報學教育 2005』. 東京: 同協會.
- [29] 清岡映一. 1952. 我が國最初の圖書館學科. 『三田評論』, 552: 44-48.
- [30] 로버트·L·기트라. 1984. 日本圖書館學事始め. 『라리블라리아즈フォーラム』, 1(3): 3-11.

- [3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0. "Japanese library school." *ALA Bulletin*, 44(11): 458.
- [3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1. "Japanese library school faculty appointments." *ALA Bulletin*, 45(1): 10.
- [33] Brewster, Beverly J. 1976. *American Overseas Library Technical Assistance, 1940-1970*. Metuchen, NJ: Scarecrow.
- [34] Danton, J. Periam. 1971. "The diffusion of library education since World War II."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9: 53-60.
- [35] Downs, Robert B. 1958. "How to start a library school." *ALA Bulletin*, 52(6): 399-405.
- [36] Gitler, Robert L. 1999. *Robert Gitler and the Japan Library School: An Autobiographical Narrative*. edited by Michael Buckland. Lanham, MD: Scarecrow Press.
- [37] Keio-Gijuku. [1951-1956, 1961]. *Japan Library School Announcement Catalogue*.
- [38] [Keio University]. [1951]. *The Name List of Japan Library School*.
- [39] Um, Young Ai. 1989. Library education i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A comparative study(I). 『圖書館學』, 17: 203-22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7] Kwon, Eun-Kyung. 1981. "Comparative study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Based on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curricula." *Doseogwanhak Nonjip*, 8: 1-29.
- [22] Lee, Soo-Sang. 1995. "A comparative study on establishment background of library science education: Focus on its initial stage in America, Korea and Japan." *Biannual Bulletin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5: 221-236.